

〈금방울전〉 연구

-요괴퇴치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카타 사요(서울대)

1. 서론
2. 한글소설에 나타난 요괴퇴치의 양상
 - 1) <금방울전>
 - 2) <김원전>
 - 3) <홍길동전>
3. <금방울전> 요괴퇴치의 이중적 의미
 - 1) 변신하는 요괴의 정체
 - 2) 공주구출과 용자구출
4. 용자구출담으로서의 <금방울전>
5. 결론

1. 서론

<금방울전>은 금방울의 모습으로 태어난 여자주인공 금령(金鈴)과 금령이 가지는神通력(神通力)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웅적인 활약을 하는 남자주인공 해룡(海龍)의 일대기(一代記)가 양립(兩立)된 한글소설이다. 판본의 출간 횟수가 많은 것을 보아 조선후기에 비교적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금방울전>의 이본은 목판본, 활자본, 필사본이 전한다.¹⁾ 먼저 목판

1) <금방울전> 이본에 대해서는 최운식이 이본의 종류, 문장 비교, 영향관계 등을 자세히 검토한 바 있어 크게 참고로 하였다(최운식, 「<금방울전> 연구」, 『국제대학논문집』 12집, 1984). 아울러 이 논문에서 최운식은 작품 전체가 천상계와 지상계, 그리고 비현실계와 현실계, 행운과 고난 등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본으로는 경판28장본, 20장본, 16장본의 세 종류가 있으며, 장수가 줄어들수록 후대의 것으로 판단된다.²⁾ 활자본은 1916년에 신구서림(新舊書林)에서 간행된 것을 필두로 열 종류를 넘는 활자본이 간행되었다. 활자본 가운데 대부분은 경판28장본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구조적 차이를 들자면 대부분의 활자본에는 마지막에 주인공 부부가 승천(昇天)하는 모티프가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금방울전>과는 별개의 <창두 이야기>가 활자본 끝에 붙어 있는 것이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활자본은 유통되었던 경판28장본을 모본으로 삼아 문장을 가다듬고, 나아가 승천 모티프와 <창두이야기>를 추가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³⁾

그런데 최근에 간행된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 필사본의 교주본은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다.⁴⁾ 향수동의 세책집에서 빌려주던 이 필사본은 그때까지 그 존재만 소개되었을 뿐이었다.⁵⁾ 우선 이 책의 필사연대는 1898년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책이다. 활자본과 문장이 유사하고 나아가 목판본에 없고 활자본에만 보였던 승천 모티프가 이 필사본에 그려져 있다. 이에 유춘동은 동양문고본 필사본을 경판28장본의 선행본이라 추정한 바 있다.⁶⁾ 그 이유는 필사본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 경판28장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방증자료가 제시된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19세기 말에 경판28장본의 내용보다 더 길고, 승천 모티프가 추가된 책이 이미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책이 목판본으로도 간행되었는지, 세책으로만 유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계통의 책이 활자본 제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혹 경판28장본보다 장수가 많은 목판본이 일찍이 출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동양문고본 필사본은 <금방울전> 이본 가운데 잘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양문고본 필사본을 기본 자료로 사용하면서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2) 위의 논문, 10쪽.

3) 위의 논문, 19쪽.

4) 이윤식 등 교주, 『금방울전·김원전·적성대전·만원사』, 연세국학총서34, 경인문화사, 2006.

5) 최윤식, 앞의 논문, 7쪽.

6) 이윤식 등 교주, 앞의 책, 6쪽.

<금방울전>은 조선후기에 제작, 유통된 수많은 한글소설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비교할 때 유난히 설화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몇 가지 설화적 요소들이 서사에 등장하면서 복합적으로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연구도 설화적 요소를 추출하는 일부부터 시작되었다. 성기열은 <금방울전>에 나타나는 설화적 요소 12 가지를 들어 각 요소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한 바 있다.⁷⁾ 아울러 ‘금방울’ 모티프를 고대신화에 등장하는 난생모티프의 변용으로 보고, 주인공 금령의 초인적神通력의 의미를 신화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⁸⁾ 성기열의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게 수용되었고, 이후 금령의 변신 모티프나 용신사상 등, <금방울전>의 설화적·신화적 요소에 주목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⁹⁾

한편 <금방울전>이 금령과 해룡의 영웅적 인생을 온전히 그리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서대석은 <금방울전>의 남자주인공 해룡의 일대기가 군담소설에 등장하는 영웅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세밀한 서사단락 분석을 통해 밝혔다.¹⁰⁾ 그런데 해룡의 영웅적 성공이 모두 금령의 힘을 빌려서야 가능했다는 사실은 <금방울전>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금방울전>을 여성영웅소설로 보거나 양성영웅소설 혹은 금령의 성장소설로 보는 등, 남녀 주인공의 일대기를 축으로 한 <금방울전>의 작품 분석이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졌다.¹¹⁾

이러한 연구에서 특히 주인공이 겪은 성장과정으로 부각되어 온 사건이 요괴퇴치이다. 요괴퇴치는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하국대적퇴치설화’ 유형이 소설에 수용된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금방울전>이 ‘지하국대적퇴치설화’ 유형을 가지는 각편의 하나로 다루어지기도 하였고, 나아가 이

7) 12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몽조(夢兆), ②도교적(道敎的), ③효부(孝婦), ④이물교구(異物交媾), ⑤난생(卵生), ⑥욕심꾸러기, ⑦보은(報恩), ⑧괴물, ⑨계모(繼母), ⑩시련극복(악마퇴치), ⑪탈곡(脫穀), ⑫기타(신표, 군담). (성기열, 『한국구비전승의 연구』, 일조각, 1976, 95-115쪽)

8) 위의 책, 116-130쪽.

9) 김미란, 고대소설에 나타난 여성변신의 의미, 『문호』 8집, 1983.

10)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11) 김군홍, <금방울전>의 구조와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04; 김미란, 앞의 논문; 최기숙, 성장소설로 본 <금방울전>, <김원전>, 『연민학지』 7집, 연민학회, 1999.

모티프가 <금방울전>에 수용되는 양상, 소설화 양상, 소설 속에서 가지는 기능 등이 고찰되었다.¹²⁾ 이러한 연구에서 <금방울전>의 요괴퇴치는 해룡이 상층 계급에 올라가서 출세하기 위한 큰 계기, 즉 통과제의(通過祭儀)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 <금방울전>의 경우, 해룡 혼자 힘으로 요괴를 퇴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령의 초인적이고 신성한 힘을 빌려야 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필자 또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요괴퇴치가 주인공에게 있어 통과제의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은 요괴퇴치 모티프가 등장하는 소설이나 설화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요소이다. 그러므로 <금방울전>의 요괴퇴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서야 <금방울전>의 요괴퇴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요괴퇴치가 주인공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이 장면은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방울전>의 요괴퇴치가 지니는 특징과 소설 속 기능을 요괴퇴치 장면의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우선 ‘지하국대적퇴치설화’가 삽입된 소설작품에서 요괴퇴치의 양상을 정리함으로써 <금방울전> 요괴퇴치의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둘째로 특히 <김원전>과의 비교를 통해 <금방울전>에 나타나는 요괴의 정체를 밝히겠다. 셋째로 그 요괴가 주인공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고찰하고, 요괴를 퇴치하는 행위가 가지는 이중적 의미에 대해 소설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며 생각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금방울전>의 요괴퇴치가 단순히 삽입된 모티프가 아니라 작품 전체를 흐르는 축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고찰이 요괴퇴치라는 설화적 요소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소설 속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김순진,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이조전기소설의 구조 대비분석」, 『구비문학』 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3; 송진한, 「한국설화의 소설화연구-〈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고전소설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84.

2. 한글소설에 나타난 요괴퇴치의 양상

요괴퇴치 유형은 일반적으로 지하국에 사는 요괴에게 납치당한 공주를 영웅적 힘을 가진 인물이 구출함으로써 구출자와 공주가 혼인한다는 구조를 가진다. 각편에 따라서는 구출자를 지하국으로 인도해주는 제삼자(인물, 신, 동물 등)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공주를 구한 구출자가 신하들에게 배신당하여 공주구출의 공을 빼앗기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출자가 지하국(異界)으로 들어간다는 점과 납치된 귀인(貴人)을 구출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설화유형이 수용된 한글소설은 <금방울전>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김원전>은 요괴퇴치 이야기가 소설의 주제가 되어 있다. 그 밖에도 <홍길동전>, <장백전> 등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금방울전>과 함께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요소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작품인 <김원전>과 <홍길동전>에 나타나는 요괴퇴치 양상과 퇴치당하는 요괴의 정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1) <금방울전>

<금방울전>에서 요괴를 퇴치하는 영웅적 인물은 남자주인공 해룡이다. 해룡이 계모 변씨의 집을 떠나 갈 데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산중에서 갑자기 요괴가 나타나 동행하던 금령을 삼키고 도망간다. 해룡은 금령을 구하기 위해 산을 찾기 시작한다. 산중의 어떤 궁궐에 도달한 해룡은 그 궁궐 속에 요괴가 살고 있고, 또 그 요괴에게 납치된 금선공주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해룡이 궁궐 안에 들어가 요괴를 발견하니 요괴는 이미 피를 토하면서 쇠약해진 상태였다. 해룡은 공주에게 받은 칼로 요괴를 죽인다. 그러니 요괴 가슴 속에서 금령이 튀어 나온다. 해룡은 공주를 구출한 공으로 부마도위가 된다.

<금방울전>의 경우, 요괴가 사는 곳은 지하국이 아니다. 돌문과 같은

경계도 없이 단지 산속에 홀연 다른 세계가 있었다고 서술된다. 또 <금방울전>의 요괴의 정체는 금돼지이다. 이 금돼지는 “본디 여러 천년(千年)을 산중(山中)의 오리 잊서 득도(得道)하였기로, 사람의 형용(形容)을 쓰고 변화(變化) 무궁(無窮)한” 요괴였다. 즉 산에 오래 살며 도를 닦은 결과 사람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 짐승이다. 또한 이미 여러 선학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금방울전>에서 요괴퇴치에 큰 힘을 발휘한 것은 여자주인공 금령이다. 금령은 처음 요괴가 나타났을 때 해룡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요괴에게 먹혔다. 그 때문에 요괴는 속을 앓았는지 피를 토해 쇠약해졌으며 결과적으로 해룡은 쉽게 요괴를 퇴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금방울전>에서 금령의 몫은 컸다고 할 수 있다.

2) <김원전>

<김원전>¹³⁾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요괴퇴치 모티프가 소설의 주제가 되었다. 요괴퇴치 설화의 구조를 온전히 갖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¹⁴⁾ <금방울전>과의 관련에 대하여도 일찍이 주목을 받아¹⁵⁾ <금방울전>이 <김원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거나 작자가 같다고 추정되기도 하였다.¹⁶⁾

<김원전>에서 요괴를 퇴치하는 인물은 남자주인공 김원(金圓)이다. 김원은 수박의 모습으로 태어나 10살 때 탈곡한다. 김원은 산에 들어가 도술을 닦고 있을 때 공주들이 요괴에게 납치당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공주들을 구하려 요괴와 싸웠으나 요괴는 지하국으로 도망간다. 김원은 한 번은 산을 내려오는데, 공주 납치의 사실을 알게 된 황제가 김원에게 명하여 공

13) 본고에서 참고로 한 책은 이윤석 등 교주, 앞의 책에 수록된 필사본 <김원전>이다.

14) 장덕순,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김원전」,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김미란, 「김원전 연구」, 『기전어문학』 2집,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7; 박종성, 「김원전」 일고, 『덕성어문학』 9집,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이영수, 「<김원전>과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8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7 등이 있다.

15) 김원의 장자 이름이 해룡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금방울전>과 <김원전> 사이의 전후 상관성을 암시한다.

16) 김기동, 『이조시대 소설론』, 이우출판사, 1978, 108쪽.

주를 구하게 한다. 요괴퇴치를 위해 지하국으로 내려간 김원은 동자에게 받은 부채의 도움으로 요괴를 퇴치하고 구출한 공주들을 지상으로 보낸다. 그러나 신하들의 모계로 김원은 지하국에 갇힌다. 그는 그간 요괴에게 잡힌 동해용왕의 아들을 구출하여 용궁에 가 용녀와 혼인한다. 수년을 용궁에서 살다 지상으로 돌아왔을 때 김원은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고양이로 변신한 용녀와 지하국에서 신표를 준 셋째 공주의 도움으로 환생한다. 김원은 셋째 공주와 정숙공주로 봉해진 용녀 두 여인과 혼인한다.

<김원전>에서는 요괴와의 싸움이 실질적으로 두 번 벌어진다. 한 번은 김원이 도술을 닦다가 우연히 공주를 데려 가는 짐승을 만나 퇴치하려 하였으나 요괴가 도망갔다. 두 번째는 왕의 명을 받아 원수로서 요괴를 퇴치하러 갔다. 이 때 천상계의 힘을 빌리기는 했으나, 김원은 혼자 지하국에 내려가 혼자 요괴를 죽였다. <김원전>에서 요괴의 거처는 어떤 구멍으로 부터 들어가 돌문으로 경계 지어져 있는 지하국이며, 김원은 줄을 따라 진입하였다. 지하국에 사는 요괴의 정체에 대해서는 ‘일흠을 아지 못흐나 장(丈)이 십척(十尺)이 남고 머리 아홉이’ 되는 짐승이다. 그가 사는 궁궐 문에는 ‘천하제일(天下第一)강산 구두장군(九頭將軍) 아문(衙門)’이라 쓰여 있었다.

<김원전>에 나타나는 요괴퇴치의 경우, 공주를 구출한 뒤에 역시 요괴에게 잡힌 동해용왕의 아들을 구한 공으로 용궁에 가서 용녀와 혼인하는 ‘용자구출담(龍子救出譚)’이 나타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공주를 구출한 뒤에 공주와 바로 혼인한다는 것이 요괴퇴치의 기본형이라면, <김원전>에서는 공주를 구출하는 요괴퇴치의 서사 속에 용자구출담이 교묘하게 삽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김원은 요괴퇴치의 공으로 공주와 혼인하는 동시에 용을 도운 공으로 용녀와 혼인하게 된 것이다.

3) <홍길동전>

<홍길동전>¹⁷⁾의 요괴퇴치 또한 비교적 요괴퇴치 모티프의 기본 요소들

17)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책은 이상택 편, 『고전소설』(한국문학총서 1, 해냄, 1997)에 수록된

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홍길동이 약을 캐러 산에 들어가니 우연히 한곳에 불빛이 비치고 여러 사람들이 떠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잘 보니 그들은 모두 짐승이며, 홍길동은 그 가운데 장수로 보이는 짐승을 향해 활을 쏘았다. 다음날 홍길동이 활로 쏜 짐승의 피를 따라가니 짐승들이 사는 큰 집에 도달한다. 그 집에 사는 짐승들은 홍길동에게 대왕이 활을 맞아 상처를 입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다. 홍길동은 대왕의 상처를 고치는 척하며 약으로 ‘대왕’을 죽인다. ‘대왕’을 모시던 여러 짐승들이 원수를 갚으려 홍길동과 싸운다. 그러나 짐승들은 홍길동의 요술로 인해 모두 죽게 된다. 홍길동은 짐승에게 납치당한 세 여자를 구출하여 그 여자와 혼인한다.

홍길동이 만난 요괴는 이름이 ‘을동’¹⁸⁾이며 짐승이 되 사람 같이 생겼다 하였다. 그들은 수만년을 산에 살아 요괴화(妖怪化)된 것이다. 그들의 거처는 지하국이 아니라 깊은 산속이다. 길동은 짐승의 피를 따라 혼자 그들이 사는 큰 집을 찾았고, 요괴를 퇴치하는 장면에서도 어떤 인물이나 천상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퇴치하였다.

<홍길동전>의 요괴퇴치에서는 요괴들이 홍길동을 처음부터 적대자로 삼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그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물론 여러 요괴들과의 싸움도 벌어졌으나, 길동은 ‘대왕’을 죽일 때에는 약으로, 요괴들을 죽일 때도 구체적인 묘사 없이 요술로 퇴치하였다. 또한 홍길동이 구출한 여자들은 공주가 아니었으므로 길동은 부마가 된 것은 아니었다. 즉 <홍길동전>의 요괴퇴치는 출세의 계기로서의 기능보다 혼인의 계기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할 수 있다.

3. <금방울전> 요괴퇴치의 이중적 의미

1) 변신하는 요괴의 정체

완편36장분 <홍길동전>이다.

18) ‘을동’은 짐승의 종류를 나타내는 일반명사로 보인다.

앞장에서 요괴퇴치 모티프가 등장하는 소설을 들어 그 요괴퇴치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금방울전>의 요괴퇴치가 가지는 특징을 부각시키고 <금방울전>에 나타난 요괴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요괴퇴치의 발단을 보면 모두 우연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즉 주인공이 미리 공주 납치의 사실을 알고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 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우연히 요괴를 만나거나 구출하라는 명을 받는 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요괴를 퇴치하는 존재는 모두 남자주인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홍길동전>에서는 주인공이 가지는 힘만으로 요괴퇴치에 성공하였으나 <김원전>과 <금방울전>에서 남자주인공은 제삼자의 힘을 빌려서야 요괴퇴치에 성공하였다. <김원전>에서는 동자에게 받은 부채가 큰 역할을 했고,¹⁹⁾ <금방울전>에서는 금방울의 신통력과 공주가 건네준 칼의 도움이 없었으면 요괴를 퇴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금방울전>에서는 해룡이 칼로 직접 요괴를 무수히 찢었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는 해룡 자신의 영웅적 소질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밝힌 것처럼 본고에서 특히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요괴의 정체이다. 우선 요괴가 사는 곳을 보면 세 작품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유형에 맞게 지하국으로 나타난 것은 <김원전>이고, <금방울전>과 <홍길동전>에서는 깊은 산속에 홀연 요괴의 거처가 등장하였다. 요괴의 모습을 살펴보면 <금방울전>과 <홍길동전>에서는 짐승으로 나타났다. <금방울전>에서는 금돼지라고 하였고 <홍길동전>에서는 ‘을동’이라 하며 어떤 짐승인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는 않았다. 그 짐승은 산속에 오래 살았기에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된 요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한편 <김원전>의 요괴는 <금방울전>, <홍길동전>과 다르게 짐승은 아니다. 길이가 10척을 넘고 머리가 아홉 개 달린 ‘구두장군’이라고 서술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금방울전>에 등장한

19) <김원전> 허바드대학본과 파리동양어학교본에서는 이들 신물은 별 소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종성, 앞의 논문, 99면, 각주14번을 참조.

요괴 금돼지가 금령을 삼키기 직전에 갑자기 ‘아홉 머리 가진 것’으로 변신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김원전>에 등장한 요괴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다.²⁰⁾

아홉 머리를 가진 요괴의 정체는 무엇일까. 길이가 10척이라도 하였으니 긴 동물이었을 것이다. 이에 머리가 아홉 개 달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용이다. 이는 한국 곳곳에 ‘구룡연’이나 ‘구룡굴’과 같이 용과 아홉을 연결하는 지명 및 관련 설화들이 전승되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김원전>에 등장하는 요괴는 용을 암시하며, <금방울전>에 등장하는 요괴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금돼지이면서 용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요괴는 짐승, <기원전>에 등장하는 요괴는 용, <금방울전>에 등장하는 요괴는 짐승과 용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금방울전>에서 요괴는 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까. 또 왜 금령을 삼킬 때에 용으로 변신했어야 하는 것일까. <금방울전>에 묘사된 요괴의 모습을 장면마다 제시해보자.

희룡(海龍)이 변시 짐을 썬나 남(南)다히로 가거나...어디로 향(向)할 줄을 몰나 쥬저홀 지음의, 금농(金鈴)이 구울너 갈 길을 인도(引導) 하는지라. ...여러 고기를 너머갈 시 층암절벽(層巖絕壁) 스이의 프른 잔디와 암석(巖石)이 격천(隔川)하여 뵈거늘, 생(生)이 석상(石上)의 안저 잠간 쉬더니 문득 ...고이른 ① 금(金) 갖튼 터럭 돛친 짐승이 쥬홍갓튼 입을 버리고 다라드러 자가(自家)를 헐(害)하려 하는지라. 생(生)이 급(急)히 피(避)코져 헐더니 금농(金鈴)이 고을노 너다라 막으니, ②그 짐승이 몸을 혼드러 변(變)하여 아홉 머리 가진 거시 되어 금농(金鈴)을 집어삼키고 드러가거늘...

이 부분은 해룡과 금령 앞에 갑자기 요괴가 모습을 드러내어 금령을 삼

20) <김원전>에 등장하는 요괴와 <금방울전>에 등장하는 요괴가 ‘아홉 머리(九頭)’를 가진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동익 등으로 인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요괴가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신동익, 『금방울전, 김원전』, 형설출판사, 1977, 132쪽).

키는 장면이다. ①의 묘사에서 요괴는 금돼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②에서 그 짐승이 갑자기 용의 모습으로 변신하였다. 그 후 요괴는 금령을 삼키고서 사라졌다.

그 요괴(妖怪)의 가슴을 무수(無數)히 짚고 보니, 금(金)터럭 돛친 엄(鬚)이 붙으듯고 흉악(凶惡)호 듯치거어늘, 이 짐승은 본디 여러 천년(千年)을 산중(山中)에 오릭 잇셔 득도(得道)호였기로 사람의 형용(形容)을 쓰고 변화(變化) 무궁(無窮)호지라.

이 장면은 요괴를 찾아낸 해룡이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요괴를 칼로 죽이는 장면이다. 방금 금령을 삼킬 때 용으로 변신한 요괴는 이때 또다시 금돼지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즉 이 요괴는 금령을 삼킬 때에만 용으로 변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하기 위해서 요괴가 왜 용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김원전>의 요괴의 정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김원전>에서 지하국에 사는 요괴가 용으로 나타난 것은 <김원전>에서 용자구출담이 삽입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김원전>에서 김원은 공주를 구출하여 지상 세계로 보낸 뒤에 용자를 구출하고 용궁으로 갔다. 이는 지하국이 땅 속의 어두운 동굴이 아니라 물 세계, 혹은 물세계로 통하는 이공간(異空間)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 김원이 공주만을 구출하였다면 요괴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용자를 구출하고 용궁으로 가기 위해서 요괴가 물세계와 관련이 있는 존재로 묘사되어야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괴가 용이라는 존재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공주구출과 용자구출, 용궁 방문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방울전>에도 물세계와 관련을 맺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용이라고 해서 꼭 물세계가 등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돼지가 금령을 삼킬 때에만 용으로 변신한 것은 그래야 할 이

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금방울전> 가운데 요괴의 거처를 살펴보면 요괴 금돼지가 물과 관련된 존재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아래의 서사는 해룡이 산을 헤매다 요괴가 거처하는 곳에 도달하는 부분이다.

…점점 드러가니 아문(衙門)을 크게 열고 동중(洞中)의 주궁궐궐(朱宮貝闕)이 응천상지상광(應天上之上光)이오, 니성(內城) 외곽(外郭)이 은은니 뵈거늘, 즈서히 본즉 문(門) 우희 금조(金字)로 크게 써시디, ‘금선 슈부(水府)’²¹⁾라 호엿는지라.

해룡은 금방울을 구하러 산을 헤매다 어떤 궁궐에 도달하는데, 그 문에는 ‘금선수부’란 이름이 금자로 쓰여 있었다. 여기서 ‘수부’는 물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바로 용궁을 지칭하기도 하다. <김원전>에 보면 김원이 공주를 구한 공을 용왕이 칭찬하는 부분에 물 세계나 용의 세계를 가리키는 ‘수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천디(天道) 무심치 아녀 아귀를 쇼탕호시고 슝 공주와 여러 인명을 구호시니 그 공이 인간과 슈부(水府)에 호디(浩大)호지라. 이제 세상의 나가시른 여반장(如反掌)이니 녀네(念慮) 마르시고 한가지로 동행(同行)호여 슈부(水府)의 드러가 부왕(父王)과 뵈옵고 갈 거시오, 또 슝용왕(四海龍王)이 아귀를 근심하더니 이제 이 말을 드러시면 또한 그 공을 감호려 호시리니 선성(先生)은 날과 한가지로 가스이다.”

여기서 ‘수부’라는 말은 인간세계와 대비되는 말로 쓰였는데, 즉 물 세계를 말한다. 이 서사를 통해 <금방울전>에 서술된 요괴의 거처 ‘금선수부’가 물 세계라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금방울전>에서 깊은 산속에 홀연 물 세계가 나타났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요괴가 ‘아홉 머리 가진 것’으로 변신한 사실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전개라 할 수 있다. 또 <금방울전>

21) 경판28장본에서는 수부는 “수도부”로 되어 있다.

에서 ‘수부’는 찬란한 궁궐과 같이 묘사되며 용궁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금방울전>의 요괴퇴치가 용, 그리고 용이 사는 물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금방울전>에서 요괴가 금돼지와 용 두 가지 모습을 띠게 되었고, 요괴의 거처가 물세계로 나타난 것일까. 다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자.

2) 공주구출과 용자구출

<김원전>의 경우, 요괴가 용으로 나타난 것은 서사 속에 용자구출담이 삽입됨으로써 주인공이 용궁으로 가는 모티프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금방울전>의 경우는 용궁에 가는 서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금방울전>에도 <김원전>과 같이 용자구출담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김원전>에서 김원은 요괴퇴치를 통해 두 여인과 혼인한다. 한명은 공주이며 또 한명은 용녀이다. 마찬가지로 <금방울전>에서도 해룡은 두 여인과 혼인하였다. 한명은 요괴로부터 구출한 금선공주이며 또 한명은 금령이다.

여기서 금령이란 존재가 전생에 남해용녀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해룡과 금령의 혼인은 김원과 용녀의 혼인과 동일한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금령은 과연 해룡을 돕기만 한 존재였는가라는 문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아래의 인용은 해룡이 요괴를 퇴치하는 장면이다.

그 즈성이 전상(殿上)의 누어 알타가 문득 스람을 보고 일찌나려 허다가 도로 잣받지며 비를 웅키고 일신(一身)을 뒤틀어 움작이지 못히고 입으로 피를 무수(無數)히 토(吐)하며 것구러지느니라. 성이 이 형상을 보[고] 하수(下手)코져 허려 허나 적수(赤手)로 몸의 촌철(寸鐵)이 업서 방황(彷徨)허더니 혼 미인(美人)이 홀연(忽然) 칠보홍군(七寶紅裙)으로 몸을 가뵈야이거러 벽상(壁上)의 결인 보검(寶劍)을 갖다가 급(急)히 성을 쥘거늘 성이 즉시(卽時) 브다들고 다

라드러 그 요괴(妖怪)의 가슴을 무수(無數)히 질이고 …이의 가슴을 헛치고 본
즉 문득 금녕(金鈴)이 구울너 나으오미 심이 보고 크게 받기며…

해룡이 요괴를 퇴치할 때 요괴가 이미 약해진 상태였던 것은 요괴가 금령을 삼킴으로써 속을 앓았기 때문이다. 금령이 요괴에게 먹히지 않았더라면 해룡이 요괴에게 잡혔을 것이고, 또 요괴를 쉽게 퇴치할 수 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금령의 역할은 컸다. 그러나 인용문에 보듯이 금령은 요괴가 죽었기에 요괴의 가슴 속에서 탈출하였다. 그러므로 해룡이 요괴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금령은 영원히 탈출하지 못했다. 즉 금령이 요괴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되, 한편으로는 요괴에게 잡힌 금령을 해룡이 구출하였다는 구도가 성립한다. 바로 여기에 용자구출담이 성립된다. 비록 해룡과 금령의 결합은 요괴퇴치만을 계기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해룡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구출한 두 여인과 혼인하였다. 요괴퇴치는 공주구출과 용자구출이란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원전>과 <금방울전>은 구조가 같다고 하겠다.

그런데 <금방울전>이 <김원전>과 다른 점은 공주구출과 용자구출의 시간 차이이다. <김원전>에서는 공주를 구출한 뒤에 용자를 구출하였기 때문에 공주구출과 용자구출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금방울전>에서 공주구출은 용자구출이란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해룡이 요괴를 퇴치할 때 공주를 구출함과 동시에 금령까지 구출하게 되었다. 공주구출과 용자구출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단순한 삼입이나 연결이 아니라 공주구출이라는 표면적 사건 뒤에서 용자구출이라는 복선적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금방울전> 서사구조의 짜임새의 교묘함을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슨 이유로 이 두 가지 서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용자구출이라는 사건을 소설의 큰 축으로 보면서 <금방울전> 요괴퇴치의 기능을 검토하고자 한다.

4. 용자구출담으로서의 <금방울전>

이 장에서는 <금방울전>에서 공주를 구출하는 동시에 금령을 같이 구출하는 구조를 보인 이유를 생각하고자 한다. 여기서 금뱀지가 용으로 변신한 이유도 밝혀질 것이다.

먼저 해룡과 금령의 전생에 주목해 보자. 숨겨진 용자구출담에서 구출되는 존재인 금령의 전생, 즉 남해용녀의 인생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금령의 전생은 남해용녀이다. 남해용녀는 해룡의 전생인 동해용자와 혼인하는 바로 그날, ‘남선진주’란 요괴를 만나 용자와 함께 싸우다가 힘이 다해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 동해용자도 힘이 다해 도망가다가 장원부부를 만나 장원 부인의 입속으로 피난한다. 즉 해룡과 금령은 전생에도 똑같이 요괴를 만나 싸운 적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두 주인공은 옥제께 “보수(報讎)하기를 발원”²²⁾하여 금생에 환생하였다.

즉 두 주인공이 금생에 환생한 목적은 원수를 갚고 미진한 인연을 다하기 위해서였다²³⁾. 그 원수란 다름이 아니라 용녀를 죽인 요괴이다. 그런데 전생에서 만난 요괴는 ‘남선진주’라는 이름이고 ‘동해호상’에서 만났다고만 서술된다. 두 주인공이 용이었다는 점, ‘동해호상’에서 요괴를 만났다는 점 등으로, 이야기의 배경은 바다 등 물세계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겉으로 볼 때에 전생에 만난 요괴와 금생에 만난 요괴를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금생의 요괴가 용으로 변신하고 또 ‘수부’에 살았다는 사실이 바로 금생의 요괴가 곧 전생에 만난 요괴와 같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²⁴⁾. 더욱이 전생의 요괴퇴치

22) “맞춤 남해용녀(南海龍女)와 동해용자(東海龍子) 조연 원스(冤死)하여 옥제(玉帝)의 보수(報讎)하기를 발원(發願)하은즉(…)”

23) 최운식, 앞의 논문, 418쪽.

24) 최운식은 “해룡과 금령이 힘을 합하여 퇴치한 요괴는 전생에서 이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파괴했던 ‘남선진주 요괴’와 대응된다고 하겠다.”고 하여 전생과 금생의 요괴를 연결시켜 보는 입장을 제시하였다(최운식, 앞의 논문, 37쪽). 또 해룡과 금령의 결합을 위해서는 “천상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용자와 용녀의 행복을 파괴한 ‘남선진주 요괴’에 대응하는 ‘지하요괴’의 퇴치가 필연적이다.” 하여 천상계와 지상계, 지하계의 순환 구조를 분석하였다.(최운식, 앞의 논문)

와 금생의 요괴퇴치의 서사 가운데, 동일한 지명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전생과 금생의 연결점을 암시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다음 구절은 장원부부가 해룡과 만나는 장면이다.

화설(話說) 대원(大元) 지정말(至正末)의 장원이라 하는 지 잇스되 벼살이 한원(翰苑)의 잇더니 원(元)나라 망(亡)호고 대명(大明)이 중흥(中興)호미 시절을 피(避)호여 티안주 이풍산의 숨어더니 일일(日日)은 장공이 일몽(一夢)을 어드니 남전산 신령(神靈)이 갈오던 “시운(時運)이 불리(不利)호여 도만간의 디회(大禍) 잇슬 거시니, 밧비 써나라.” 호고 간디업거늘, 공이 썩여 부인(夫人)다려 몽사(夢事)를 일으코 부인(夫人)과 혼가지로 넷 길을 찾더니 문득 풍위(風雨) 이러나며 홍의동지(紅衣童子) 압히 나아와 급(急)히 니러 왈(曰), “소즈(小子)의 명(命)이 시각의 잇ᄃ오니 부인(夫人)은 구(求)호여 쥬쥬셔.”

장원부부는 꿈에 나타난 ‘남전산’의 신령의 말을 듣고 태안주 이풍산을 떠나 난을 피해 오다가 동해용자를 만났다. 다음 구절은 동해용자를 삼킨 장원부인이 열 달 후에 해룡을 낳은 장면이다.

그 달부터 티기(胎氣) 잇서 십삭(十朔)이 츠미 일기(一個) 옥동(玉童)을 생(生)호니 얼골이 남전산의셔 보던 선동(仙童) ᄃ튼지라.

두 장면을 합쳐서 정리하면, 장원부부는 ‘남전산의 신령’의 말에 따라 ‘태안주 이풍산’을 떠나 도피해 왔다가 ‘남전산’에서 동해용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금생에서 해룡이 금령을 구하러 요괴를 찾다가 도달한 곳 또한 ‘남전산’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본 부분이지만 다시 확인해보자.

죽을 힘을 다호여 기여드러가니 홀연(忽然) 천지(天地)가 명낭(明朗)호고 일월(日月)이 도요(照耀)호지라. 두로 살펴보니 청석(靑石) 돌비(碑)의 금즈(金字)로 삭여시디, ‘남전산 봉늬동(蓬萊洞)’이라 호엿고, …점점 드러가니 아문(衙

門)을 크게 열고 동중(洞中)의 주궁궐(朱宮貝闕)이 응천상지상광(應天上之上光)이오, 니성(內城) 외곽(外郭)이 은은니 뵈거늘, 즈셔히 본즉 문(門) 우희 금즈(金字)로 크게 써시디, ‘금선 슈부(水府)’라 하였는지라.

해룡은 죽을힘을 다하여 요괴의 거처를 발견하는데 그곳은 ‘남전산 봉래동’이었다. 즉 전생에서 동해용자가 요괴로부터 도망 와서 장원부부를 만난 곳과 금생에서 요괴가 사는 곳이 ‘남전산’이라는 같은 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전산’ 뿐만이 아니다. 동해용자는 장원부부에게 자신이 미처 ‘수부’로 들어가지 못해 도망 왔다고 설명한다.²⁵⁾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금생에서 해룡은 요괴가 사는 ‘금선수부’라는 궁궐에 도달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해용자는 억울하게 자신의 부인이 될 남해용녀를 잃고 ‘남전산’에 와서 스스로 그 인생을 내생으로 넘겼다. 그런데 그는 금생에 해룡으로 환생한 후,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남전산’에 오게 된 것이다. 이때 해룡에게는 납치당한 금령을 구출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져 있었다. 전생에는 남해용녀를 구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해룡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해룡은 어니까지나 자신이 전생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해룡은 금령을 구출하는 일에 대해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봉(金鈴)을 집어습키고 드러가거늘, 생(生)이 이 거동(舉動)을 보고 디경(大驚)하여 낙담(落膽) 상혼(喪魂) 왈(曰), “반다시 금봉(金鈴)이 죽었도다.” 하고 탄식(歎息)하며 아모리홀 줄 모르더니 홀연(忽然) 일진광풍(一陣狂風)이 지느며 공중(空中)의셔 크게 불너 왈(曰), “그디 엇지 금봉(金鈴)을 구(求)치 아니 하고 저리 방황(彷徨)하느다. 급(急)히 구(求)하라.” 하고 문득 간디업는지라.

25) “쇼자(小子)은 동해룡왕(東海龍王)의 제삼자(第三子)옴더니, 남해왕(南海王)이 되어 부부(夫婦) 친영(親迎)하여 오다가, 동해호상(東海湖上)의셔 ‘남전진주’라 하는 요괴(妖怪)를 만나, 용여(龍女)를 아스가려 하미 두 니외(內外) 합역(合力)하여 싣호다가, 용여(龍女)는 힘이 진(盡)하여 죽고 쇼지(小子) 또한 어린 고로 신통(神通)을 부리지 못하고 다라나다가 밋쳐 슈부(水府)로 드러가지 못하고 기력(氣力)이 썩진(乏盡)하여 다라날 곳지 업는지라.”

생(生)이 생각하되, “하늘이 가르치시니 부득불(不得不) 구(求)하려니와, 그러나 적수(赤手)분시오 몸의 촌철(寸鐵)이 업시니 엇지 더적(對敵)하리오.”...

동행하던 금령이 요괴에게 먹힌 것을 보고 해룡은 금령이 죽었을 것이라고 바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령을 구출하라는 공중의 목소리를 들어도 아무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걱정하면서 ‘부득불’ 금령을 찾아간다. 이와 같이 해룡이 전생의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생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시련을 주고 해룡으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전생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다음 인생을 구축해 나가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금생의 요괴퇴치는 전생의 원수를 갚기 위한 단순한 장치가 아니다. 해룡은 전생에 남해용녀를 잃은 원망을 풀기 위해 ‘남전산’에 오게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생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면서 이번만큼은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남전산’에 와야 했던 것이다.

<금방울전>의 요괴퇴치가 용자구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은 바로 이와 연관이 있다. 금돼지가 홀연 용으로 변하여 금령을 삼킨 것은 바로 전생에서 ‘남선진주’에게 죽임을 당한 남해용녀의 모습이 되풀이된 것이다. 또 해룡이 금령을 찾다가 ‘남전산’ ‘금선수부’에 도달한 것 또한 전생에서 ‘수부’로 도달하지 못해 ‘남전산’으로 도망 온 동해용자의 모습이 되풀이된 것이다. 전생에서는 용녀를 구출하지 못했지만, 금생에서는 용녀를 구출하여 요괴퇴치에 성공하였다. 요괴퇴치의 시련을 극복한 해룡과 금령은 내생으로 넘겼던 그다음 인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금방울전>에 삽입된 용자구출담은 이미 전생에 발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해용자는 용녀를 구출해야 할 사명을 다음 생에 넘기게 된 셈이다. 금생에서 그 사명을 수행한 해룡은 금령(남해용녀)과 혼인하였다. 이 혼인의 성립으로 인해 전생에 시작된 용자구출담이 완결되었다. 물론 금령이 요괴퇴치에神通력을 발휘하여 해룡을 도왔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며, 금령이 구출되기만 기다리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는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해룡과 금령이 전생에 요괴를 만났을 때, ‘두 너외(內外) 합역(合力)하여 쓰’웠다고 동해용자가 설명했듯이 금생에서의 요괴퇴치 또

한 둘이 힘을 합쳐서 싸우다 승리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동해용자와 남해용녀가 전생에 다하지 못한 인연을 여러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이룩하는 것이 <금방울전>을 뚫고 있는 주제이다²⁶⁾. 서론에서 말했듯이 <금방울전>은 설화적 요소가 다수 등장하면서 소설을 구성하고 있다. 김기동은 <금방울전>에 대하여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도 비교적 정연하게 잘 짜여져 있다”고 한 바 있다.²⁷⁾ 이는 작품 전체를 용자구출담이라는 축이 관통함으로써 여러 요소들이 산만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용자구출담의 큰 축은 소설 형성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금방울전>의 작자는 용자구출담을 주제로 하여 소설을 쓰는 데, 우선 용자구출을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설정하였다. 한 번 실패하게 하고 주인공을 환생시킨 것이다. 나아가 용자구출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인공들에게 시련이나 갈등, 명예를 주며 주인공들의 성장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용자구출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기에 성공하였다. 그 과정 가운데 전생과 금생의 연결점이 된 것이 요괴퇴치이다. 이 사건은 동해용자와 남해용녀에게 주어진 최대의 시련이다. 그런데 그 시련은 오히려 복선(伏線)처럼 처리되었다. 겉으로 볼 때는 해룡이 금령의 신통력을 빌려 지하국 요괴를 퇴치하여 공주를 구출함으로써 입신출세하는 장치로 연출하였다. 그러면서도 순간적인 요괴의 변신이나 동일한 지명의 암시 등, 전생과 금생의 연결점을 도처에 제시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 작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금방울전>의 서사 가운데, 주인공의 시련극복이나 출세, 결연

26) 최두식은 “본 작품은 단순한 요괴퇴치소설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용자와 용녀의 이질화를 거친 뒤 합일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하여 용과 용이라는 동질결합 사이에 요괴가 개입하였다고 보았다.(최두식, 『<금령전> 연구 -구조적 분석을 중심으로-』, 『동아논총』 19집, 동아대학교, 1982, 225쪽)

27) 김기동, 앞의 책, 108쪽.

의 계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온 요괴퇴치에 주목하여 <금방울전>의 요괴퇴치가 가지는 이중적 의미를 밝히고 소설에 용자구출담이라는 큰 축이 관통되어 있음을 밝혔다. 앞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금방울전>에 등장한 요괴의 정체는 금돼지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 금돼지는 금령을 삼킬 때에만 용으로 변신한다는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 여기서 <금방울전>의 요괴퇴치의 서사 속에 ‘용자구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해룡이 공주만을 구출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 남해용녀였던 금령을 구출하여 두 여인과 혼인한 것이 ‘용자구출담’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방울전>은 <김원전>처럼 공주를 구출하는 요괴퇴치 이야기에 용자구출담이 삽입된 것은 아니다. <금방울전>의 용자구출담은 이미 전생에 발단되었다. 해룡과 금령이 전생에 동해용자와 남해용녀였을 때 요괴의 기습을 당한 사건이다. 요괴 금돼지가 금령을 삼킬 때에만 변신한 것은 전생의 요괴퇴치의 재생을 암시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금생의 요괴퇴치는 해룡과 금령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 이 기회에 두 주인공은 힘을 합쳐 요괴퇴치에 성공하였다. 소설 마지막에서 두 주인공의 혼인이 성립함으로써 전생에 시작되었던 용자구출담은 결말을 본 것이다. 즉 <금방울전>은 용자구출담이 소설의 큰 주제가 되어 있다. 요괴퇴치는 표면적으로는 공주구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주인공이 전생에 못 다한 인연을 맺기 위한 시련 극복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또한 <금방울전>에 용자구출담이라는 큰 축이 관통되어 있고, 그 속에 공주구출이라는 또 다른 요괴퇴치가 삽입된 양상은, 공주를 구출하는 요괴퇴치라는 큰 주제 속에 용자구출담이 삽입된 <김원전>과 비교할 때 비슷하면서도 상반되는 구조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점이 바로 두 작품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이다. 두 작품은 지금까지 요괴퇴치, 공주구출, 용설화, 탈곡 등 여러 공통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두 작품에 수용된 모티프는 같으나 기저에 깔린 큰 주제가 다르다는 구조적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이는 두 작품의 사이를 더 멀러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 작품의

연관성을 보다 부각시키는 요소라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겠다.

참고문헌

- 김미란, 「김원전 연구」,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기전어문학』 2집, 1987.
- 김순진,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이조진기소설의 구조 대비분석」, 『구비문학』 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
-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3.
- 박종성, 「김원전 일고」, 『덕성어문학』 9집,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6.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 성기열, 『한국구비전승의 연구』, 일조각, 1976.
- 송진한, 「한국설화의 소설화연구-〈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고전소설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84.
- 신동익, 『금령전·김원전』, 형설출판사, 1977.
- 이윤식, 유춘동 등저, 『금방울전·김원전·적성의전·만원사』, 연세국학총서34, 경인문화사, 2006.
-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 정상진, 설화의 소설화와 김원전, 『문화전통논집』 장간호,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3.
- 최운식, 「금방울전 연구」, 『서경대학교논문집』 12집, 1984.
- _____, 「〈금방울전〉의 구조와 의미」, 한국고전문학회, 『고전소설연구의 방향』, 1985.

A study on Tale of *Kuembangul*

SAKATA Sayo

Tale of *Kuembangul* is the epic of *Haeryong* who was supported by *Keumryong*.

Keumryong had magical powers, and helped *Haeryong* whenever He fell into crisis, so he could overcome the ordeal.

The motif of killing a monster functioned as an important rite of passage in the story. This killing motif has two aspects. One is saving princess of King and the other is saving the princess of Sea God. In the previous life, *Haeryong* and *Keumryong* were killed by monster and they were born again in this world. They got second chance to revenge the monster in this life. They helped each other and killed the monster. Eventually they got married.

The essential theme of this story was that a hero helps a princess of Sea God rather than helps a princess of King. The former was the main stream which lead the whole story and the other was the secondary event that represented the success of the hero.

key words : *Tale of Kuembangul*, The motif of killing a monster, Saving the princess of Sea God, *Haeryong*, *Keumryong*

접수일자 : 2008. 4. 10 심사기간 : 2008. 4. 10~2008. 5. 20 게재결정 : 2008. 5. 20
--